

愿人人安渡

【明慧网】宋词给人一种亲切自然的感觉，它能自然地表达人内心的情感与心声，仿佛是一位知心的朋友在倾诉。请您欣赏这首《贺圣朝·惜真相》，领悟一位朋友的心声。

手持真相留君步，
问缘归何处。
谎言欺世暮云愁，
莫匆匆歧路。
今朝迷雾，明朝凄雨。
叹霜花难护。
西风雁字远思长，
愿人人安渡。



명백

명혜 정기 간행물

난잡한 난세속에서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자

특 간

공무원 친구와
이야기하다





목록

- 03 사전에 방비하자-----공무원 친구와 직업 안전을 말해보자
- 05 진장 판공실에서의 비밀 대화
- 08 두려운 죽음의 직위
- 09 무엇때문에 나의 몸에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 11 당신은 이 사람들과 공모자로 되고 싶나요?
- 13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걸출한 인물이다
——고관학마 물결의 핵심 비밀
- 16 배경자료 : 이 성구에서 전례 없던 사악
- 18 이것이 정상적인 직업인가?
- 21 전세계에서 장쩌민을 고소
- 23 력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28 인과보응은 미신인가?
- 33 “610” 인원이 보내 온 한통의 편지
- 35 한가지 “절대복종”이란 악이 있다
- 37 “나는 그런 덕을 잃는 일을 하지 않는다”

력사를
개변하는
기의한책

《9 평공산당》을 간창하여 《9 평》이라 하며, 《대기원시보》에서 2004년 11월에 발표한 계렬 평론성 문장이며, 발표한 이래 공산당 관련 조직에서 탈출하는 “3 퇴” 운동을 일으키였다. 외국 매체에서 《9 평》은 중공의 역사, 의식형태,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중국문화, 가치관 및 중국인에 가져다 준 영향에 대하여 진행한 계렬회고와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돌파 프로그램으로 tuidang.epochtimes.com에 올라 빨리 보세요! 해외 우편함으로 freeget.one@gmail.com에 우편을 보내되 내용은 임의로 주체는 임의로하고 비우지 마세요, 10분내에 몇개 돌파 프로그램을 내려 받는 주소를 받게되며 내려 받은 후 압축을 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사히 보내기 바라네

【명혜망】 송사(宋词)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연스러운 감을 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람 내심의 감정과 진심을 표달할 수 있어 허물없는 친구가 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다. 당신께서 이 《하성조·석진상(賀聖朝·惜真相)》 시를 감상하시고 한 친구의 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손에 진상을 들고 당신을 만류하오니

인연은 어디로 돌아 가는가 물노라

거짓말 기편에 어둠속에 빠진 세상이 걱정되오니

기로에서 바삐 보내지 마시라

오늘은 젖은 안개 래일은 찬 비 내리네

서리꽃은 보호하기 어렵노라

가을 바람에 멀리 가는 기러기떼 앞날이 생각되오니

사람마다 무사히 보내기 바라네

요. 파출소에 가서 등기하면 됩니다.” 고 말하고는 파출소의 상세한 위치를 알려주고 또 차 운전기사에게 두 마디 하더니 장씨 아주머니더러 자전거를 타고 스스로 먼저 가라고 했다.

그 두 사람은 경찰이 장씨 아주머니를 경찰차에 실지 않자 다급해 나서 또 자전거를 붙잡고 사람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는가고 물었다? 경찰은: “도망 가지 못해요, 대문 어구에 경찰차 한대가 지키고 있고 그녀가 가운데서 가고 우리 이 차는 뒤에서 따를 것입니다” 고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그제야 손을 놓았다.

장씨 아주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주민구역 대문까지 와 보니 경찰차란 없었고 굽이를 돌아 계속 앞으로 가다 다시 뒤 돌아 보았더니 따라 오던 경찰차는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장씨 아주머니는 이런 진상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찰들 때문에 진심으로 즐거웠다.

진상을 명백히 알고 있는 각지 경찰들은 모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고 있다. 례를 들면 한 경찰은 “한번은 위에서 신고를 받고 나더러 파룬궁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에게 사람을 붙잡으라고 했지 나더러 반드시 붙잡아

야 된다는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요. 나는 그런 덕을 잃는 일을 하지 않아요!” 고 말했다. 또 한 경찰은 “한번은 미친듯이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고 있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맨 앞에서 달리다 바로 붙잡게 될 때 나는 고의로 넘어졌어요. 사람은 붙잡지 못했으나 위에서는 나를 적극적이라고 표창했어요.” 형사안건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한 법원의 부원장은 “나는 모든 파룬궁의 안건을 모두 병으로 인한 보증으로 심문을 기다리게 만들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



유화: 각성



사전에 방비하자 —— 공무원 친구와 직업 안전을 말해보자

“당신과 나 모두 보통사람이네, 인간 세상의 삶은, 하루 종일 바쁘게 뛰여 다니는 고생이라, 한 시각도 편안할 사이 없다네.” 이것은 우리 현대 사람의 생활 체험을 부른 노래이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력하여 공부하고 학업을 마치면 또 좋은 직장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업은 온정하고 복리가 높아 매우 많은 사람들 눈에는 이상적인 직업이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정도에서 말하면 이것은 도리여 위험이 높은 직업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어떤 “직업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 잠복된 막대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몇 개 진실한 례를 기록했으니 우리 함께 보기로 하자 :

뱃간 옆에서 전화 받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가?

2007년 2월 9일, 유람선 한척이 베트남 망제(芒街) 부근 해면에서 항행하고 있었다. 《하남일보》 신문업 집단 대표이사이자 사장인 양용더(杨永德)는 한창 이 배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리자 양용더는 뱃간 옆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당시 바람은 약하고 파도는 낮았다. 생각지도 못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 한덩이 구름 안개가 나타나더니 구름 안개는 빠르게 주위의 해면을 뒤덮어 삽시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유람선은 여전히 항행하고 있고 양용더의 통화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바로 이 때 갑자기 “쿵” 하는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유람선은 석탄 운수선과 충돌하였다. 선체가 맹렬히 진동하면서 양용더를 바다에 내던졌다. 양용더는 얼음같이 찬 바다 물 속에서 죽기내기로 발버둥쳤다. 유람선은 긴급히 닻을 내려 배를 멈추었는데 무거운 철닻은 또 딱 마침 양용더의 머리를 격중하여 64세인 그의 생명을 결속지었다.

업무를 시찰하다 왜 벼락에 맞았는가?

정유쿠이(郑友奎)는 사천성(四川省) 성두시(成都市) 피현(郫县) 득원진

(德源鎮) 종합 관리 환공실 주임이다. 2006년 5월 20일 저녁 무렵 정유쿠이는 영광촌 지부서기 쑤원청(宿云成), 촌장 수이류청(税留成)과 함께 영광촌 7사(七社) 전간(田间)으로 업무 검사하러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번쩍 하더니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쳤다. 우뢰소리가 울리자 가운데서 걷던 정유쿠이는 마치 춤을 추듯이 몇번 비틀거리더니 땅에 쓰러져 벼락맞아 사망했는데 향년 44세였다. 다른 두 사람은 도리여 아무렇지도 않았다. 잇따라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좀 지난 후, 우뢰는 조용히 멈추었다. 화서도시보(华西都市报)는 보도에서 : “갑자기 닥쳐 온 정경에 쑤원청과 수이류청은 놀란 나머지 아연실색했다.” “정씨의 바지는 이미 허벅지 쪽부터 타서 끊어졌고 왼쪽 허벅지는 세 곳이 격중되어 상했다.” 고 말했다. 사람들은 의론이 자자했다 : 우뢰는 모두 몇 번 치지 않았건만 마치 전문 정유쿠이를 위해 준비한 것 같다.

승용차 제일 안전한 위치가 안전하지 않다니 ?

런창샤(任长霞)는 하남성(河南省) 등봉시(登封市) 공안국 국장이다. 2004년 4월 14일, 런창샤가 앉은 승용차는 큰 화물차와 충돌하였는데 차안에 있던 기타 사람은 운전기사를 포함해 모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제일 안전한 위치에 앉은 런창샤는 도리여 당장에서 부딪치여 죽었는데 향년 40세였다.

그들은 왜 이렇게도 이상하게 죽었는가? 근근히 우연히 일치한 것인가? 만약 위의 세 가지 사례를 깊이 분석하고 당사자의 직업 배경을 료해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똑같은 “직업 내용”——파룬궁 박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뿐만아니라 모두 매우 적극적이였다.

철딪에 격중된 양용더는 그가 통제하고 있는 여러 신문에 파룬궁을 모독하는 내용을 대량적으로 보도했고 또 본 직장의 파룬궁 수련생을 로교소, 세뇌반에 보냈다. 벼락 맞은 정유쿠이는 당시에서 경상적으로 앞장서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납치하고, 가두고, 구타했다. 승용차 제일 안전한 위치에서 죽은 런창샤는 그녀의 녀 동생마저 이것은 파룬궁 박해에 너무 적극적이 였기에 받은 악보라고 말했다.

근년에 이렇게 이상하게 사망한 사건이 매우 많으며 각지에 모두 있다. 예를 들면 산동관현(山东冠县) 현장 류밍싱(刘明星)은 관현에서 앞장서 파룬궁을 박해하더니 결국 간암에 걸려 생명을 잃었고; 정법위원회 부서기 류화

다. 그들은 혹은 부친, 남편, 좋은 친구이다. 하지만 이런 인성의 위에 릉가된 것은 중공의 당성이며 당성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최저의 도덕선이 있어야 하고 도의 량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계선이다. 여기에서 하고싶은 말은 사람마다의 또 다른 중요한 신분이다: 당신은 사람이며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동류이다.

언제든지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신은 사람이며 우선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비로서 기타 그런 신분이다. 언제든지 모두 자신의 인성을 지켜야 하며, 선량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며, 동포의 외침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지 말며, 동포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 말며, 더욱 스스로 직접 그런 고통을 빚어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는 평생을 뒤파를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하루 종일 평안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동류를 선의로 대하면 바로 자신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며; 동류를 선의로 대하면 바로 인성을 지킬 수 있다.◇

“나는 그런 덕을 잃는 일을 하지 않는다”

목전, 파룬궁 박해에 대한 중공의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황하에 매우 많은 기층 경찰들의 파룬궁에 대한 태도는 이미 근본적인 전변을 가져왔다. 요즘 명혜망에서 매우 많은 각지 경찰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했다고 보도한 사례들이 바로 중공 자신이 들 말하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한 마디와 딱 들어 맞았다.

하부성(河北省) 모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씨 아주머니는 금년에 75세이다. 새해 전의 어느 날 정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파룬궁 진상치료를 발급 하러 갔다. 그녀는 한 주민구역에서 진상 전단지를 바로 자전거 광주리에 넣으려고 할 때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할머니의 눈에 띠였다. 할머니는 장씨 아주머니의 자전거를 꽉 붙잡고 보내지 않으면서 또 고함쳐 60여세 되는 령감을 불러왔다. 령감은 핸드폰으로 파출소에 전화 걸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오지 않자 재차 전화를 걸었다.

마침내 경찰차가 왔으며 차에서 한 젊은 경찰이 내리더니 두 사람의 “긴급 정황” 을 듣고 몸을 돌려 장씨 아주머니한테 평화로운 어조로 : “별일 없어

건 판결 선고가 곧 열리게 되였다. 이번에 판결 받을 사람은 4명의 젊은이고 년령은 모두 30살도 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과거 베를린 담벽 동부독일의 수위였다. 2년전 한 겨울 밤에 방금 20살인 클레스는 高定이라 부르는 그의 친한 친구와 함께 가만히 베를린 담벽을 기어 넘어 자유에로 도망가려 시도했다. 총소리가 몇번 울리더니 탄알 하나가 클레스의 앞 가슴을 뚫고 나갔고 다른 한 총알은 高定의 발목을 명중했다. 클레스는 아주 빨리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이 담벽의 제일 마지막 수난자라는 것을 몰랐다. 그를 쪘죽인 그 동부 독일의 위병은 英格·亨里奇라고 부른다. 당시의 英格·亨리奇는 짧고 짧은 9개월 후 베를린 사람들이 담벽을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은 오히려 최종 법정에 서서 살인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지 못했다.

베를린 법정 최종 판결 : 총을 쏘아 클레스를 죽인 위병 英格·亨리奇를 3년반 도형에 처하고 가석방하지 않는다. 그의 변호사는 그들은 단지 명령에 복종한 사람이며 근본상 선택의 권리가 없기에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변론했다. 법관은 법정에서 지적했다 : “동부 독일의 법률이 당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동부 독일을 미워하고 싫어 도망간 이런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면서, 그가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를 죽였으니 유죄이다. 경찰로서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죄가 있게 된다.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면 죄가 없다. 심리가 건전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때 당신에게는 총을 1cm 높이는 주권(선택)이 있으며 이것은 당신이 마땅히 주동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양심의 의무이다.”

중국에서 중공이 인민에 대한 요구는 “절대적인 복종”이고 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이것 이 바로 이른바 중공 조직로선의 전부 내용이다.

중공 당원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인격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공식 장소에서 중공 당원은 보통적인 인성을 많이 구비하고 있고 일반 사람의 희노 애락을 구비하고 있



베를린 담벽이 무너진지 만 27주년

이천(재杯臣)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얼마 안되어 신장병(腎病)에 걸려 한쪽 신장을 뜯어냈고 ; 공안국장 허페이(赫沛)는 매우 악독한 수단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더니 결국 목에 암이 생겼다……때문에 위에서 그 무슨 파룬궁 박해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면 매우 많은 사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의 앞 사람의 실패 교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善惡有報)”고 말하면 우리 중국 대륙에서 자란 사람은 조금 허황하다고 여기며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을지언정 그것이 없다고 믿으면은 안된다(寧可信其有, 不可信其無)”는 말이 있다.

하나의 온정한 직업이 있기는 쉽지 않다. 모두들 힘써 사업하는 것은 모두 더 많은 상금을 벌고 나가서 승진하면 증가된 로임으로 가족과 자신의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직업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 액운을 가져다 주어 생명의 안위에 관련되면 참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는가? ◇

진장 판공실에서의 비밀 대화

【명혜망】

나의 한 친척은 주로 치안을 관리하는 진장이다. 한 우연한 기회에 그는 나에게 한토막 비밀 대화를 알려 주었다.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당사자와 지명은 모두 가명이다.

원 풍원진 파출소 소장은 어느 한 번 관광하고 돌아 오는 길에 차사고

로 사망했다. 위에서는 급급히 외지 경찰관 한분을 전의시켜 대리 소장을 맡게 하였다. 성이 정(鄭)씨인 이 젊은 소장은 낯선

이 작은 진의 치안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하루는, 젊은 정씨 소장은 명단이 적혀 있는 종이를 들고 치안을 주로

책임진 하오(郝)씨 지장의 판공실에 와서 말했다 : “위에서 건당 90주년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들 한테 두 명의 파룬궁을 붙잡으라고 임무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번 큰 경축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당신 보기엔 먼저 누구를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 곳을 잘 료해하지 못하니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령도께서 가리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파룬궁 수련생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종이를 넘겨 주었다.

명단을 받은 하오씨 지장은 명단에 적혀 있는 익숙한 이름을 진지하게 보더니 한동한 침묵을 지켰다. “선배 령도님, 말씀을 하십시오, 이건 당신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정씨 소장은 조금 진정하지 못하며 말했다.

하오씨 지장은 일어서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또 차를 두 잔 봇고 나서 한켠으로는 담배를 권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위에서는 또 망탕 짓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 이 곳의 선량한 백성들인데 누가 차마 그들의 안정한 삶을 재차 교란하겠어요!”

정씨 소장은 말 뜻을 알아 들은 듯 했다 : “당신께서 나한테 이 사

람들의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도 견문을 넓힙시다?”

하오씨 지장은 명단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 “왕촌의 60 여세인 류창순(刘长顺) 할아버지는 그들 마을 어구에 있는 매우 걷기 힘든 도로를 그가 한삽 한삽 의무로 닦아 놓아 마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되였어요. 이 도로를 걷는 사람 누구나 모두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라는 한 마디를 하면서 그를 모두 매우 존경하고 있어요. 몇 년전, 그가 장거리에서 파룬궁의 억울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누군가 고발하여 파출소에 붙잡혀 갔는데 마을 사람 100 여명이 자발적으로 련명상소하여 그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어요. 파출소에서는 매우 평범한 로인을 붙잡았는데 뜻밖에 도리여 이렇게 큰 사태를 알으키자 바로 그를 놓아 주고 이 후 다시는 그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요.”

“리촌의 장롄메이(张连梅)는 중학교 선생이며 어문을 배워주고 있어요. 그녀 학교의 교장은 동창생 쑰(孙)씨서기 한테 : 장롄메이는 우리 학교의 핵심이기에 당신들이 붙잡으면 안됩니다. 그녀가 가르친 학생들은 누구나 말을 잘 듣고 성적이 좋으며 주은 물건은 꼭 돌려주며



어떤 사람은 소위의 고발을 듣고는 파룬궁은 좋은 사람에게 우리는 파룬궁의 일을 관할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하거나 혹은 경찰차를 몰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룬궁 수련생을 대신하여 소식을 전하였습니다……매우 많은 이런 경찰들은 모두 복보를 받았습니다.

비록 공산당은 파룬궁을 박해했지만 우리는 그것과 싸우려는 생각마저 없으며 모두가 일떠서 그것을 반대하라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사람들더러 중공 당, 단, 대에서 탈출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 어떤 다른 행동상의 표현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한가지 량심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오직 사람의 마음만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세요. 중공은 그렇게도 많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여 죽였는데 나쁜 일을 다 하고나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큰 악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단대에 가입할 때 모두 오른 손 주먹을 들고 맹세를 했습니다——생명을 공산당에 바치겠다는 것은 그래 독 맹세가 아닌가요? 이것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가명으로 탈출 성명을 하는 것은 독맹세를 제거하는 것이며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재난에서 평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종래로 만나적이 없으나 불가에서는 연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당신의 벗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복을 전합니다 :

신체 건강하고 좋은 사람 평생 무사하기를 축원합니다!

2014. 11. 9

한가지 “절대복종” 이란 악이 있다

“총구멍을 1cm 높여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 이 이야기는 베를린 담벽이 무너진 후의 독일에서 발생하였다. 1991년 9월 통일 후의 베를린 법정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베를린 담벽 수위 안

당신은 우리 파룬궁 수련자는 “진, 선, 인(真、善、忍)”을 말하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의 사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잘 대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인처럼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와 당신의 친척의 심정은 같습니다——당신이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하고 그 어떤 의외의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당신은 “의외로” 610 판공실에 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보아하니 당신은 이 직업을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면 매우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몇 년간 적지 않는 610 직업 인원들은 특히는 610 판공실 주임은 끊임없이 “의외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610 판공실 주임”을 “죽음의 직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친인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확실히 위험인소가 높은 직위이며, 이 역시 매우 사람을 걱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상책입니다. “하늘은 사람의 네원를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그 곳을 떠나려 한다면 그러한 기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의 생각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파룬궁(박해)에 참여하려 하지 않거니와 공산당도 반대하지 않으며 단순히 출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무슨 인과보응을 당하지 않겠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잠시 일터를 바꾸지 못하고 또 이 직업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가봐 걱정하는 마음을 매우 이해합니다.

기실 직업 직무는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대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파룬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미 태도를 표명한 것은 당신이 “진선인(真善忍)”신앙에 호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나는 당신 내심 깊숙히 있는 진심으로 된 성의와 정의감을 느꼈으며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직업은 단지 하나의 형식일 뿐 부동한 심태를 갖고 있어야 만이 비로서 결과가 부동합니다. 명혜망에 보내 온 매우 많은 대륙 소식에는 각지 610과 공안인원이 암암리에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고 있다고 써여 있습니다.

종래로 싸우고 흡연하는 학생이 없어 학부모들은 모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듣자니 그녀는 ‘진, 선, 인(真、善、忍)’에 따라 수업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활동이 있거나 혹은 상급의 검사에 그녀는 항상 주동적으로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학교를 위해 큰일을 돋고 큰일을 성사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 학교 기둥인 좋은 선생님입니다!”고 부탁했대요.

“그리고 한샤(韓霞)라고 부르는 이 분은 당신한테 솔직히 말하면 나의 고모의 셋째 며느리예요. 나의 고모는 80 여세인데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자 아들 다섯이 모두 관계하지 않았어요. 다만 파룬궁을 수련하는 셋째 며느리가 주동적으로 로인을 보살펴 주었어요. 고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말했어요. 일년 후 네 아들은 량심의 가책을 받고 고모를 름번으로 보살피자고 의론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고모는 인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한샤가 남긴 선을 향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 마을의 모범 ‘효자 며느리’가 되였어요.”

정씨 소장은 감개하면서 말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신한테 일찍 청시한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지 않고 제멋대로 하였다면 사람을 잘못 붙잡을 번 했습니다!”

하오씨 지장은 또: “당신은 풍원진의 원 소장, 당신의 전임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나요?”라고 물었다. 하오씨 지장은 원 소장이 어떻게 불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고 박해하는데 적극 참여했고, 마지막엔 악보을 받아 차사고로 사망한 경과를 들려 주었다.

여기까지 듣고 난 정씨 소장은 재빨리 손을 저으면서: “그만 이야기 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고 말했다.

“자네 젊은이들은 리해력이 좋아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이런 선량한 백성들의 생명은 중대하니 오늘의 비밀 대화를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며 이 일을 이렇게 덮어 놓읍시다! 그 무슨 생일에 헌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호우씨 지장은 분노하며 말했다 [문 / 정의(正凝)]◇

두려운 죽음의 직위

중국에는 이런 기이한 직위 하나가 있는데 직업인원의 사망률이 극히 높아 “죽음의 직위”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다. 이 직위는 바로 “610 판공실 주임”이다. “610 판공실”은 헌법과 법률 위에 놓인 나치스 독일의 게슈타포와 유사한 파룬궁 수련생 박해를 전적으로 담당한 불법조직이다. 적지 않는 “610” 주임은 전심 전력으로 된 박해를 선택하였기에 자신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아래의 사례는 다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먼이징(门懿镜), 바이웨이취안(白维权), 감숙성(甘肃省) 경양현(庆阳县) “610”의 주임과 부주임이다. 2003년 1월 8일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 전화” 하려고 외출하던 도중에 차가 뒤집혀 쌩쌩이 죽었다.

왕푸낸(王福年), 길림성(吉林省) 매하구시(梅河口市) “610” 주임이다. 2004년 11월 8일, 왕푸낸과 “610” 성원인 저우모(周某), 류펑(刘鹏) 등은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러 가던 도중에 차가 뒤집혀 다리 아래에 떨어져 왕, 류, 저우 세 사람은 당장에서 죽었다.

류웨이동(刘维东), 산동성(山东省) 서사시(栖霞市) “610” 부주임이다. 2012년 2월, 결장암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50세 좌우였다.

장스밍(张石明), 원 호북(湖北) 황강(黄冈) 첫 번째 “610” 주임이다. 2005년 2월 13일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향년 48세였다.

왕커우(王克武), 황강시(黄冈市) 두 번째 “610” 주임이다. 2005년, 임직한 다음 해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명조칭(孟兆庆), 감숙성(甘肃省) 넝현(宁县) “610” 주임이다. 2011년 12월 23일 오전 11시, 넝현 법원 경찰 뼈스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 한 렌터카 앞 밑으로 기여들었다. 삽시에 기름 상자가 불이 나면서 큰 차에 불이 붙어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두 차량을 삼켜 버렸다. 명조칭은 당장에서 사망했다.

류우칭(刘五庆), 원 감숙성(甘肃省) 경양시(庆阳市) 정법위원회 서기, “610” 주임이다. 암증 시달림 고통을 실컷 겪고 2006년 8월에 사망했다.

순바오위안(孙保元), 하북(河北) 창주시(沧州市) 염산현(盐山县) “610” 주임이다. 2010년 5월 30일, 그가 운전하던 차가 한 화물차와 충돌했는데 죽을 때 겨우 44살이다.

“610” 인원이 보내 온 한통의 편지

2014년 11월 명혜망에서 독자가 보내 온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독자는 610 판공실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이다)에 전이되어 일하게 되였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

“나는……의외로 610 판공실에 전이되어 직접적으로 파룬궁 일에 직면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일찍 매우 여래 해 전에 우연히 파룬궁을 접촉했었고 후엔 국가에서 련공하지 못하게 하자 바로 련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년령층의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이번 직업을 전이하기 전까지는 파룬궁에 대해 그 어떤 깊은 인상도 없었습니다. 비록 때로는 공산당의 부패를 욕하고 있지만 기실 공산당에 대해 극도로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

“나의 한 친척은 내가 직업을 전이한 후 늘 나를 찾아 와서 도리를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박해하면 악보를 당한다니 하면서 그리고 적지 않은 례를 들면서 보시라이 그리고 왕리쥔을 말했습니다. 나는 파룬궁과의 시비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친척은 거듭 나를 찾아와 인파이며 업력이며 말하여 현재 나의 마음은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는 나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나의 직업도 하루 이틀 사이에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그는 나에게 인터넷 돌파프로그램과 내부 우편함 주소를 주면서 나더러 명혜망을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파룬궁에 참여하려 하지 않거니와 공산당도 반대하지 않으며 단순히 출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무슨 인과보응을 당하지 않겠지요. 당신들께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파룬궁 수련생이 이 610 인원에게 보낸 회답 편지이다 :

안녕하세요 !

나는 인터넷에서 당신이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편지에서 당신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누구나 의혹과 고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회답 편지가 다소나마 당신에게 약간의 일깨움이 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망의 보도와 같았다. 조사하러 왔다가 확실한 실정에 놀란 관원은 돌아가서 여실히 교대했다. 무릇 이 사실을 료해한 하북성위 안의 고관은 크게 놀라면서 이로부터 장쩌민의 어리석은 음모를 똑똑히 간파하고 분분히 구실을 대고 더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의 4 차례 부처 소멸과 로마의 4 차례 큰 온역

중국 역사상 4 명의 제왕이 부처님에게 재난을 안겨 4 차례의 재난을 가져왔다. 역사에서 말하는 “3 무 1 종 멸불(三武一宗灭佛)”은 마지막에 모두 악보를 당했다. 북위태무제(北魏太武帝)는 멸불에서 불경을 불사르고 스님을 죽이여 결국 44 살에 폭사했고 두 아들에게도 미치여 목숨을 잃었다. 북주무제(北周武帝)의 멸불은 더욱 심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떠들면서 불, 도를 함께 소멸하여 35 살에 폭사했고 아들 손자와 옹근 우문황족(宇文皇族) 모두 멸종했다. 당무종(唐武宗)은 역사상의 회창멸불을 발동하여 26 만 여명 스님를 세속에 돌아 가라는 강제 명령을 내리고 불상을 불에 녹여 은전을 만들어 575년에 폭사했는데 향년 32살이였다. 후주세종(后周世宗) 차이룽(柴榮)이 자리를 계승한 두 번째 해에 불사를 크게 회멸하라는 명을 내리고 손수 큰 도끼로 보살 상을 찍어 훼손했다. 959년에 가슴에 악창이 나 죽었는데 향년 39살이였다.

류사한 것이 또 있다. 기원 1 세기 고로마 폭군 네루는 고의로 로마성에 불 질러 놓고 기독교 신도들에 들씌워 날조하고 증오를 선동하여 매우 많은 로마 민중들이 기독교 신도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에 참여했다. 그후 기독교 신도들은 로마에서 300년을 박해 받았다. 그 기간에 4 차례 큰 온역이 고로마를 휩쓸었다. 무력이 강대하던 로마 제국은 하늘의 천벌하에 멸망으로 나갔고 4 차례 온역으로 1 억 로마 사람이 사망했다. ◇

파룬궁은 일반적인 신체 건강 기공이 아니라 옛적부터 민간에서 전해 온 불가 기공이며 신불에 대한 신앙이다. 옛 사람들은 선의로 수련인을 대하는 것은 대선의 행동이며 큰 덕을 쌓을 수 있고 수련인을 박해하는 것은 극대한 죄악이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무엇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큰 시비 앞에서 마땅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나의 몸에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

비록 각지에서 모두 파룬궁을 박해하여 악보 받은 안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

“나는 박해에 참여했는데 왜 나에게 보응을 내리지 않았는가?”고 말하고 있다. 우리 상상해 보기로하자. 만일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는 자연의 법칙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나쁜 일을 하였는데 인증 그에게 응보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에게 반성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그러면 무엇에 직면하겠가?

“다들 보응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시험해 보겠다!”

흑룡강성(黑龙江省) 가목사시(佳木斯市) 화남현(桦南县) 국보대대장 천홍후이(陈洪辉)는 2008년에 임직한 후 크게 제멋대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고 불법으로 로교소에 보내고 판결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여러번 그에게 선행을 권고했지만 그는 종래로 듣지 않고 아울러 : “이토록 여려해 동안 차를 몰고 다녀도 차에 치워 죽지 않았다. 다들 보응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시험해 보겠다! 나는 끝까지 공산당

을 따라 가겠다!”고 떠들어 댔다. 이 말을 하고 7일도 안되어 2009년 10월 31일 오후, 천홍후이는 차를 몰고 나무에 부딪쳐 뇌두개골이 산산조각나 당장에서 사망했다

“나를 악하다고 할 수록 나의 관직은 더욱 빨리 승진”

하북성(河北省) 사하시(沙河市) 국보 대대장 왕젠쥔(王建军)는 중공을 바싹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의 권고를 듣지 않고 보응을 믿지 않으면서 또 파룬궁 수련생과 말했다 : “내가 바로 명혜망 악인 명단에 있는 가장 악한 사람 왕젠쥔이다. 당신들이 나를 악하다고 할 수록 나의 관직은 더욱 빨리 승진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이 보내 온 선행권고 편지를 읽으면서 창궐하게 말했다 : “보응이 왜 오지 않는가?” 2년 4개월 후, 악보는 끝내 왕젠쥔의 머리에 떨어졌다. 2013년 1월 26일, 왕젠쥔은 귀신이 곡 하듯이 차를 몰고 형태(邢台) 7리하(七里河)에 들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향년 40여세였다.

“재간이 있으면 나를 차에 치워 죽게 하라”

산동(山东) 고밀시(高密市) 경찰

산전중(单振忠)은 다년래 미친듯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면서 사기치고 빼앗고 신불을 비방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의 선행 권고를 귀전으로 하였다. 산전중은 기고만장하여: “옹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믿지 않는다, 재간이 있으면 지금 나를 차에 치워 죽이면 나는 탄복하겠다!” 고 말했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일년도 안되는 시간에 산전중은 뱉은 그 말대로 되였다! 2008년 8월 25일 저녁, 산전중과 그의 아내는 참혹한 차 사고를 당하여 쌍쌍이 목숨을 잃었다. ◇

소자료

◆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중공관원 악보 받은 지역 분포 제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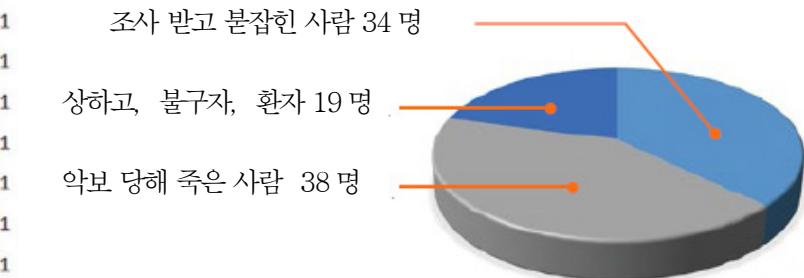
명혜망 2015년 1월 1일 통계 보도에 근거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1일까지 파룬궁 박해로 인하여 중공 정법계통과 중공 기타 부문의 관원이 당한 악보는 적어도 91 건이 발생하였다. (명혜망)

◆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중공관원 악보 받은 류형 분포

명혜망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통계 보도에 근거하였다



간수소의 옥졸은 수갑을 등에 잠그고, 족쇄를 잠그고, 전기몽둥이 등 혹형으로 그를 괴롭혔다. 딩강즈는 2001년 6월 11일 박해로 죽었다. 그날 정오 광풍이 찬황 대지에 휘몰아 쳤고 마음이 죽도록 공허했던 옥졸들은 담을 키우려고 폭죽을 사서 점심내내 터치웠다. 딩강즈의 죽음에 화하이잉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02년 2월 10일 오후 두 시 경에, 겨우 18 살인 화하이잉의 큰 아들 화형(滑恒)은 오토바이를 타고 영문도 모르게 부딪혀 죽었다. 소식을 들은 화형의 셋째 고모가 다그쳐 그의 집에 오더니 집에 들어 서자 마자 대성통곡 하였다. 그리고 나서 셋째 고모의 목소리가 변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찾아 말하겠어요! 나는 아버지를 찾아 말하겠어요! 그더러 이리 오라고 하세요!” 화하이잉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리고 망령이 몸에 붙는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말했다: “네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말하거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이 후 당신은 파룬궁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아버지 들었나요!” 화하이잉은 어쩔바를 모르면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이 때 몸에 화형이 붙은 셋째 고모는 화하이잉의 벽살을 잡고 죽기내기로 혼들면서 아울러 큰 소리로 거듭 말했다: “아버지 이 후 당신은 파룬궁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아버지 들었나요! 아버지 들었나요!” 이 때 한켠에 서 있던 친척이 화하이잉한테: “지금이 어느 때 입니까 당신은 어서 빨리 그 한테 승낙하세요!” 화하이잉은 조금 깨우친 듯이: “내가 들었다. 그러지, 그러지, 너한테 내가 승낙하겠다.” 고 말했다.

사후 화하이잉은 정말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더는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찬황현의 일부 명석한 관원 역시 어느 정도 깨우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룬궁 박해를 피면했다. 이 사실은 당시에서 매우 널리 전해지고 영향이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 명혜망에서 보도했다. 놀랍고 두려워난 하북성내 고관은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사실의 진위를 조사하면서 기어코 사실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떠들어 댔다. 그들은 당사자 화하이잉을 찾았고 화하이잉은 막대한 압력을 맞서 사실을 하나 하나 열거하고 마지막에 또 사직을 제기하였다 (화하이잉은 후에 전의되어 찬황현 위생국에서 임직했다); 사실의 진위를 조사하려 갔던 성내 고관은 또 당시 백성들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말한 것은 모두 명혜

당지 정부에서 위에 보고한 후, 중앙에서는 해군에 명을 내려 태호 억울함 외침소리의 중심 구역에 작은 군함의 경중기관총으로 사격하고 수류탄으로 폭팔했지만 모든 조치들은 모두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에 공안부에서는 고도로 민감한 록음기로 태호 억울함을 외치는 소리를 록음하고, 각성의 지방 공안인원을 북경에 집결하여 각각 듣고서 각자는 자기 지방 방언 원흔이 서술한 억울한 안건을 기록하게 했다. 당시 억울함을 고소한 사람이 서술한—어떻게 릉옥당하고, 호된 매를 맞고, 혹형을 당하고, 살해당한 억울한 죽음의 정경을 듣고 다들 머리카락이 곤두섰으며 일부 독한 마음이던 오랜 공안 경찰마저 듣고서 눈물 투성이 되였다. 후에 조사한데 의하면 이런 억울함을 외친 안건은 완전히 사실임을 입증했다. 례를 들면 란주(兰州), 성두(成都), 할빈(哈尔滨), 상해(上海), 청도(青岛), 개봉(开封), 보정(保定), 내몽골(内蒙), 북경(北京)에서 발생한 억울한 안건과 1949년 토지개혁, 1955년 반혁명 숙청, 문화대혁명중의 억울한 안건의 이런 원흔들이 모두 동시에 태호에 나타났던 것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당시 후요방(胡耀邦), 조즈양(赵紫阳), 천윈(陈云), 시중쥔(习仲勋), 완리(万里)는 이구동성으로 중공이 력차 정치운동에서 저지른 모든 나쁜 짓은 진정으로 천인이 공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요절한 아들 몸에 붙어 박해를 멈추라고 아버지를 훈계

하북(河北) 찬황현(贊皇县) 기률 검사위원회 상무위원 화하이잉(滑海英)은 성관진(城关镇)에서 전문직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다. 화하이잉은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향촌 간부를 시켜 파룬궁수련생의 집에 가서 수련생을 핍박하여 수련을 포기하는 보증서를 쓰게 했다.

성관진 파룬궁 수련생 당강즈(丁刚子)는 자전거 수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선인(真善忍)” 수련을 포기하지 않아 속임수로 간수소에 갇혔다.



당신은 이 사람들과 공모자로 되고 싶나요?

— “파룬궁”과 관련된 직업 인원에게 드리는 편지

당신은 파룬궁 박해에 도대체 어떤 죄악이 발생하였는지 아시는가요? 당신은 이런 죄악이 어느 날 꼭 천하에 널리 알려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나요? 그날이 올 때면, 당신은 그런 악도의 “공모자(同谋者)”라고 불리우고 싶나요? 당신의 가족, 아이와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한 시간 사이에 선량한 녀성을 학살

파룬궁 수련생 장수센(张淑贤 53 살)은 길림성(吉林省) 도문시(图们市) 곡수촌(曲水村) 농촌 녀성이다. 그녀는 시부모를 선의로 대하는 마을 사람들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다. 2014년 8월 7일 오후, 장수센은 도문시 국보대대 경찰에 납치되어 한시간 남짓한 동안 고문 자백을 당하여 죽었다.

장수센의 허벅지 살은 찢겨져 있고 음부 주위에는 전기몽동이 격타로 탄상처가 있었고 등에는 또 차고 맑은 피 흔적 신자국이 있었다. 고급 검찰원 법의는 사체 검사 후 장수센은 혹형 당하여 죽었다고 당시에 표했다.

련속 전기 격타로 얼굴이 훼손 당한 후 학살로 죽었다

파룬궁 수련생 고룽룽(高蓉蓉)은 생전에 료녕성(辽宁省) 심양시(沈阳市) 루쉰(魯迅) 미술학원에서 사업했고 2003년 7월 불법인원이 룽산(龙山)로동교양원에 납치해 갔다. 2004년 5월 7일 고룽룽은 경찰 탕위보오(唐玉宝)가 전기 몽동으로 련속 6~7시간 격타한 후 얼굴은 심하게 훼손됐다: 살가죽은 화상을 입어 부풀어 오르고 탔고; 얼굴은 주먹 크기로 부어 올랐고; 누런 물이 얼굴에서 배어 나오고; 머리카락은 얼굴과 귀에 달라붙고; 목의 물집은 엄지 만큼 컸고; 늘 함께 지내던 보통 범인마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2005년 6월 16일 학살로 죽은 고룽룽은 뼈가 앙상했다. 겨우 37 살이다.

마취약을 놓지 않고 녀 교사의 장기를 적출

2009년 12월 12일, “파룬궁 박해 추적국제 조사위원회”에서는 한 경찰의 중언 록음을 공포했다. 이 증인은 한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전반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원문을 상세히 보려면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2/13/214358.html>, 반드시 돌파그램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2002년 증인은 료녕성(辽宁省) 공안계통에서 근무하면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타행동에 참여했다. 2002년 4월 9일, 심양군구 총병원 15층의 한 수술실 안에서 증인은 당시 총을 들고 경위를 맡고 있었는데 친 눈으로 두 군의가 살아 있는 30 대의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학교 녀 교사에게 마취약을 놓지 않은 정횡하에 생생하게 심장과 신장을 적출하는 것을 보았다.

증인은 또 그가 금주(锦州) 공안에서 근무할 때 당시의 금주 공안국 국장 왕리쥔 (王立军)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꼭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아무런 마취약도 놓지 않은 채 흉부에 칼을 들이 댔는데 그들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아마 나라면 분명 손이 떨렸을 것이다.……당시 우리는 저마다 권총을 들고 옆에서 보초를 섰다. 이 때는 (그녀의 앞 가슴) 이미 절개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녀는 크게 비명을 질렀는데 그녀는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를 외쳤다.……당신이 나 한 사람을 죽여도, 대체적인 뜻은 당신은 나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몇 억명을 죽일 수 있는가, 자신의 진정한 신앙을 위해 당신들에게 박해 받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가? 이 때 그 의사와 군의는 잠시 주춤거렸는데 그리고 나서 나를 한 번 쳐다보고 또 우리 지도자를 쳐다 보았다. 그후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 혈관을… …처음 적출한 것은 심장이였고 다음에는 또 신장을 적출했다.” “심장의 혈관을 가위로 자르자 그녀는 곧 경련을 일으켰는데 아주 끔직했다.……그리고 나서 아 ……아 ……줄곧 입을 크게 벌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였다. 아 ……나는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도 않다!”

증인은 또 이 전에 생체적출 당한 이 녀 중학교 교사는 이미 련속 한주일 동안 심한 형벌 심문, 심지어는 성희롱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

파룬궁 박해 17년간, 장쩌민의 “명예상에서 더럽히라”, “경제상에서 절단하라”, “육체상에서 소멸하라”는 집단학살 명령하에 거의 매일마다 인성을 멸절하는 박해가 발생했다. 명혜망에는 4030명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죽었고 또 매우 많은 수련생이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당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큰 죄악을 영원히 덮어 감출 수 있단 말인가?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른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이다. “인과보응”은 결코 미신이 아니다. 시야를 넓혀 세계를 보면 외국 민중들은 보편적으로 신을 믿으며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종교 과목이 있고 신이 세간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선하면 선한 복이 따른다를 믿고 있다. 중공이 정권을 건립하기 전 중국 사회 역시 신을 믿는 사회였고 무릇 관직이나 직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던 아니면 성시 평민을 막론하고 신을 믿고 신을 공경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 현상이자 상식이였다.

전세계에서 오직 공산당의 국가만이 무신론을 말하고 사람더러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과 외국에서 잘 팔리는 책에서도 모두 무신론으로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매우 많은 현상을 말했다.

중남해를 흔들어 놓은 태호 령이 사건

중국 대륙 저명한 의학 전문가이자 미국 예루대학의 정년 퇴직 교수인 장위밍(张育明) 선생은 중공이 정권을 건립한 후의 3 가지 전형적인 령이(灵异)한 사건을 폭로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태호 원흔 사건(太湖冤魂事件)”이다.



1980년 겨울, 장위밍 교수는 정주(郑州)에서 중공 하남성위 공업부 고급 공정사인 저우(周)씨 교수와 긴 담화를 나눈 적이 있다. 저우씨 교수는 그의 손에 있는 중공 당내 기밀문건에 국내 적지 않는 지방에서 나타난 일부 초 자연적인 사건을 현시했다고 말했다. 그중 제일 사람의 주의를 일으킨 것이 바로 모쩌둥(毛澤东)이 죽은 후, 태호 중심에서 매일 한밤중 이른 새벽부터 중국 남녀의 억울한 혼이 각 지방 언어로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인데 모두 중공이 정권을 훔친 후 발동한 력차 정치운동에서 잘못 살해하고 탄압한 사람들의 억울한 하소연이였다.

泽东)이 죽은 후, 태호 중심에서 매일 한밤중 이른 새벽부터 중국 남녀의 억울한 혼이 각 지방 언어로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인데 모두 중공이 정권을 훔친 후 발동한 력차 정치운동에서 잘못 살해하고 탄압한 사람들의 억

하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다. 성시 관리 부문에서 차 수리 공구를 몰수 한 것으로 인해 그는 생활 압력에 대한 타격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변 사람들은 리유린이 파룬궁을 련마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가족이 성시 관리 부문을 고발하려 할 때 당시 민정부문에서는 정부부문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사망자가 파룬궁을 련마하여 자살했다고 말했다. 공안부문은 자살 현장을 위조하고 사망자 신변에 소주와 관련된 서적을 놓고 다시 록상을 찍고 이른바 우물대에서 목매여 죽은 안건을 조작하였다. 파룬궁은 음주를 금지하지만 당시 당시 공안부문에서는 아직 이 점을 모르고 있었기에 록상에서 헛점이 폭로되었다.



강에 뛰여든 자살 안건

중경(重庆) 영천(永川) 쌍석진(双石镇) 쌍교가(双桥街) 70번에 살고 있는 룽강(龙刚)은 정신병이 도져 강에 뛰여들어 사망했다. 룽강이 죽은 후 성이 뚜(杜)씨인 기자가 그의 아내를 취재하면서 파룬궁을 모독하는 말을 종이에 적고 그녀더러 그대로 읽게함과 아울러 그녀에게 200 원을 주었다. 룽강의 부모는 명예망에 글을 올려: “아들이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모가 제일 똑똑히 알고 있으며 천하에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들은 확실히 정신병이 있으며 당시 정신병이 도져 강에 뛰여들어 사망했고 파룬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의 부모로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며 량심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고 말했다.[문 / 화운 (华云)] ◇

인과보응은 미신인가 ?

작용력이 있으면 반 작용력이 나타날 것이며 무슨 일을 하던 모두 하나의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걸출한 인물이다

—고관학마 물결의 핵심 비밀

속담에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걸출한 인물이다”, “명철 보신하다(明哲保身)”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중국에서 무엇이 진정한 “시대의 상황”인가? 어떻게 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2012년 왕리쥔(王立军)이 미국 형사관에 도망해서부터 시작하여 중공 고관이 분분히 락마하고 있다. 처음에는 보시라이(薄熙来), 후엔 리동성(李东生), 쉬차이허우(徐才厚), 쑤룽(苏荣), 잇따라 저우융캉(周永康)……또 많은 여려 해외 매체에서 장쩌민 및 그의 가족도 이미 내부 통제를 받고, 원중공정치국 상무위원인 쟁청홍(曾庆红)도 이미 중공 내부의 비밀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 했다. 그러나 락마한 성 부급 관원 인수는 더욱 많다.

이런 동란의 시국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명철보신인가? 그럼 우선 진상을 료해해야 한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락마한 이런 고관 대다수는 모두 장쩌민 패거리며 모두 장쩌민을 바싹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괴빛 패거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보시라이(薄熙来), 중공 제17기 정치국 위원이며 장쩌민 집단이 선정한 “후계자”이다. 보시ライ는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면서 파룬궁 수련생 생체에서 인체 장기 적출을 조직하여 대련에서 “시체가공 공장”을 건립했다. 장쩌민 집단의 자체 타산은: 2012년, 보시라이를 중공 “18 대 상무위원”의 자리에 옮겨 놓고 그가 저우융캉의 중공 정법위원회 서기직을 넘겨 받아 파룬궁에 대한 박해 정책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년이란 시간을 들여 즉 2014년에 정변 등 비상적인 수단으로 보시라이가 시진핑(习近平)을 대체하여 중공 총서기로 되여 장쩌민 집단의 예전의 권세를 회복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의 계책은 하늘을 따르지 못한다. 2012년 초 왕리쥔이 주 성도 미국 형사관에 도망한 이 후 얼마 안되어 2012년 4월 10일 보시라이는 정직당했고, 2013년 9월 22일 보시라이는 무기 도형을 받았다.

- 쉬차이허우(徐才厚), 귀보승(郭伯雄), 중공 제17기 정치국 위원이며 관직은 중공 군위 부서기이며 장쩌민이 군대에 배치한 앞잡이다. 그들 두 사람 역시



피벗 패거리는 법률의 공정한 심판과 자연 법칙의 보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인체 장기를 적출하는데 전심 전력한 주요 살인범이다. 2014년 6월 30일, 중공 “7.1” 직전에 쉬차이허우의 안건을 군사 검찰원에 보내여 처리하였다. 2015년 3월 15일 쉬차이허우는 방광암으로 사망했다. 2015년 4월 9일 귀보승은 기률위반 문제로 인해 조사 받았고 2016년 7월 25일 군사법정에서 뇌물죄로 귀보승을 무기도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평생 박탈하였다.

● 리동성(李东生), 공안부 원 당위부서기, 부부장이다. 2016년 1월 12일 뇌물죄로 유기도형 15년 판결을 내렸다. 2013년 리동성이 탁마할 때 그가 “610”(중공이 전문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 관공실 주임이라는 관직을 보기 드물게 꽂로했다. 이것은 현재 정권이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집단과 절단하려는 것을 표명하였다.

● 쑤룽(苏荣), 중공 강서(江西) 성위 서기직을 맡았었고 몇 기 “중앙위원”, 제 12기 전국 정협 부주석이며 파룬궁 박해에 전심 전력했다. 2017년 1월 23일 쑤룽은 뇌물죄, 직권 람용죄와 거액 재산 래원 불명획죄로 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 도형 판결을 받았다.

● 저우융캉(周永康), 사천(四川) 성위 서기직을 맡고 있을 때, 전심 전력으로 장쩌민의 명령을 집행하여 사천성으로 하여금 박해로 죽은 파룬궁 수련생 인수가 가장 많은 성 중의 하나로 되였다. 이 후 저우융캉은 “로케트” 속도로 승진되고 권력도 갈수록 커지고 저지른 나쁜 일도 갈수록 많아 졌다. 저우융캉이 중공 공안부 부장직을 맡은 이후 파룬궁 박해를 중공 공안 업무의 중점으로 정하여 불과 3년도 안되는 시간에 이미 확인된 박해 받아 죽은 파룬궁 수련생 인수는 약 700명으로부터 2940명으로 증가함과 아울러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 적출 죄행에 직접 참여한 죄를 범했다. 2014년 7월 29일 저우융캉을 립안하여 심사하였다. 2015년 6월 11일 저우융캉은 무기도형 판결을 받

늘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다고 했다.

비닐 병사리 불에 타지 않는다?



화면을 촬영할 수 있단 말인가?

“분신자살” 사기극 련합국 회의에서 폭로되다

2001년 8월 14일 련합국 회의에서 국제 교육 발전조직은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은 중공 당국의 “국가 공포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은: 록상 분석이 표명하였는 바 옹근 사건은 (중공)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

“1400례”는 터무니 없는 조작

1999년 7월부터 파룬궁 박해를 시작 한 후, 중공 장쩌민 패거리는 대변인 매체를 이용하여 하늘 땅을 뒤엎을 듯이 거짓 말을 퍼뜨렸는데 마치 문화대혁명의 재현과도 같았다. 그중 제일 악렬한 거짓 말은 바로 이른바 “1400례”이다. 이런 사례중 중공은 파룬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살, 살인 및 병으로 죽은 사건을 파룬궁에 들씌워 1400개 악몽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사실상 파룬궁은 살인과 자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다음은 두 가지 거짓말 사례이다.

우물대에서 목 매여 죽은 안건

리유린(李友林)은 길림성(吉林省) 료원시교(辽源市郊)에서 차 수리를

비록 박해 시초에 기타 6 명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가 반대를 표했지만 장쩌민은 “당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큰 모자로 상무위원들이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그해 7월에 제멋대로 수중의 권력을 리용하여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박해를 선택한 이것은 중공의 본질에서 결정된 것이다. 중공의 본질은 “가악투(假惡斗)”이며,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결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물과 불이다.

비록 17 년의 박해를 겪었지만 파룬궁은 여전히 세계 100 여개 나라와 지역(홍콩, 오문, 대만을 포함)에 널리 전해졌고 여러 가지 표창과 지지의안 편지 등 3000 여가지를 수여 받았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사기극이다

2001년 중앙텔레비전은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 프로를 방송하고 이것을 파룬궁에 들씌우고 모함했다. 하지만 분신자살 화면속에는 도리여 많은 조작한 헛점들이 있다 :

평복을 입고 화상자 격리실에 들어가다 ?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최대 위험은 세균 간염이다. 중앙텔레비전의 기자는 도리여 격리복도 입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른바 분신자살 녀자 아이 류스잉(劉思影)을 취재하고 있다.

2001년 2월 4일, 국제 저명한 《워싱턴 유편보》 기자 필립·콴은 문장을 발표하여 그가 친히 류스잉의 고향 개봉에 가서 실지 조사하였으며 이웃들은 모두 종래로 “분신 자살자” 류춘링(劉春玲 류스잉의 어머니) 이 파룬궁을 련마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류춘링은 무녀(舞女)이고 그리고

았고 그의 가족과 심복들도 분분히 분집혔다.

.....

장씨 집단이 파룬궁 박해에서 범한 죄악은 너무 크다. 박해로 죽은 인수가 거대할 뿐만아니라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인체 장기를 적출하고 살인으로 리익을 도모하여—— “이 성구(星球)에서 전례 없던 사악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던 가장 엄중한 반 인류죄행이며 사악한 정도는 이미 나치스 집중영을 초월했다.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로 놓고 끝났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률의 공정한 심판과 자연의 법칙의 응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큰 죄악에 누가 련루되려 하겠는가? 중공 내부의 기타 고관 모두 감히 이 피빛을 짊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극력 장쩌민 “피빛 패거리” 와의 계선을 분명히 가르면서 자신에게 퇴로를 남기고 있다.

겉으로 볼 때, 고관악마는 중공 내부 권력 싸움이지만 표면현상을 통해 근원을 찾아보면 그들의 락마는 모두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의 업보를 현세에서 치르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자연의 법칙보다 크지 않으며 관직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의 뜻 보다 높지 않다.

현재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죄행은 이미 련합국과 해외 매체에서 폭로되었으며 국내의 바이두(百度)에서 수색해도 때로는 “생체 장기 적출” 등 민감 단어가 뜨고 있다. 종이로 불을 쌀 수는 없으며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진상이 중국대륙에서 철저히 폭로되는 그 날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다.

파룬궁 박해는 단지 “상급의 명령을 집행” 이란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 반인류와 집단학살 죄행에 언급되며 참여한 자는 당년의 나치스 분자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법률의 지명 수배를 받을 것이며 아득히 멀고 구석진 곳까지 찾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대세를 똑똑히 보아낸 매우 많은 중공관원들은 분분히 자신에게 퇴로를 남기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가명으로 중공당, 단, 대에서 탈출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를 멈추고 아울러 기타 사람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면서 공을 세워 속죄하려 한다.

이런 정황하에 만일 여전히 명령에 복종하여 박해를 집행한다면 그렇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무엇에 직면 하겠는가? 당신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막심한 후회를 남기지 말기를 권고한다.◇

배경자료: 이 성구(星球)에서 전혀 없던 사악



2006년, 중인 안니(安妮)와 피터(皮特)는 백악관 부근에서 신문 발포회의를 열고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폭로했다. 피터는 기자이고 안니는 원 심양(沈阳) 쑤자툰(苏家屯) 료녕성(辽宁省) 혈전중서결합(血栓中西结合) 병원의 근무인원이다. 그들은 함께 증언을 했다. 2001년부터(보시라이가 료녕성 성장직을 맡고 있는 기간)

6000명 파룬궁 수련생이 료녕성 혈전중서결합 병원 지하실에 갇혀 오늘까지 살아 나온 사람이 없다……그들이 묘해한 것은, 그중 4분의 3의 사람은 이미 심장, 신장, 안 각막을 적출당했고 피부를 벗긴 후 사체는 불에 태워 종적을 없애버렸다. 안니의 전 남편은 이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2000여 명 파룬궁 수련생의 안 각막 적출 수술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공포로 인해 심한 정신 문제를 초래하여 후에 해외로 도피했다.

두 증인 「생체 적출」 죄행 폭로

학기술 박람》 잡지 편집부에 가서 사실을 밝히 였다. 잡지사 측에서 시정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 4월 23일, 천진시에서 갑자기 방폭 경찰 300여 명을 출동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수련생이 피를 흘리고 상하고 45명이 붙잡혔다. 천진시 정부는



1999년 4월 25일, 만명 파룬궁 수련생의 평화상방은 문명하고 안정하고 질서가 정연하여 경찰은 한켠에서 한담하고 있었다.

청원하러 간 파룬궁 수련생에게 사람을 붙잡으라는 명령은 북경에서 내렸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경에 가서 정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25일, 파룬궁 수련생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안고 법에 따라 북경 중남해 부근에 있는 국무원 신방 판공실에 가서 평화상방을 했고, 천진의 수련생을 석방하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하나의 느슨한 수련 환경을 줄 것을 희망했다. 시임 총리의 주목하에 문제는 기본 해결되었다. 그날 저녁, 수련생들은 조용히 떠났다. 상방할 때 그들은 구호와 표어 없이 조용하고 상서롭고 질서 정연했고, 떠날 때 그 어떤 쓰레기도 남기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이 던진 담배 꽁초리마저 주었다.

“4·25” 평화상방은 해외 매체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상방을 “중국 상방 역사상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리성적이고 평화롭고, 가장 원만한 상방”이라함과 아울러 중국 정부의 개명한 처리 방법에 찬사를 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리어 장쩌민의 극도로 되는 질투와 공포를 자아냈다. “64” 학생의 선혈을 밟고 기여 오른 장쩌민은 중공의 계급투쟁 자유로 문제를 보는 것에 습관되었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의 평화상방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아내지 못하고 이것은 공산당에 대한 시위라고 인정했다. 그날 저녁, 장쩌민은 평화상방을 “중남해를 포위 공격”했다고 모욕했다.



『양성완보』 및 일부 성시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 등등이다.

● 1998년 2월 21일, 『대련완보』는 대련 해군선박학원의 파룬궁 수련생이 대련 자유강 빙하 3미터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진 사적을 보도했다.

● 1998년 7월 19일, 『중국 경제시보』는 『나는 일어섰다!』는 제목으로 16년동안 마비된 하북(河北) 한단(邯鄲)의 가정 주부 셰슈芬(謝秀芬)이 파룬궁을 수련하였기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왼쪽 아래 그림)

● 1998년 12월 31일, 심수(深圳) 『심성시보』는 전면에 파룬궁을 보도했다. (오른쪽 아래 그림).



중공은 왜 파룬궁 박해를 선택하였는가

1998년 부분 인대 정년 퇴직 로간부들은 파룬궁에 대해 몇 달간의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파룬궁은 나라에든 인민에게든 백 가지 리로움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그해 년말에 중앙 정치국에 바쳤다. 중공은 언녕 파룬궁에 대하여 정면적인 료해가 있으면서 왜 박해를 선택하였는가? 어떤 사람은 만일 파룬궁 수련생이 북경으로 상방하려 가지 않았다면 박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방 경과를 돌이켜 보면 사실은 결코 이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9년 4월 11일, 당시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뤄간(罗干)의 친척 허쭤슈(何祚庥)는 『청소년 과학기술 박람』에 파룬궁을 모독한 문장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수천명 파룬궁 수련생이 자발적으로 륙속 천진 교육학원 『청소년 과

독립조사 생체 적출 고발을 증실

데이비드 · 킬고어 (캐나다 전 아태사 사장)과 데이비드 · 메이터스 (인권변호사)는 2006년 7월 6일에 독립조사 보고 한편을 공개하였다. 결론은 : 대규모적인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의 인체 장기를 적출한 죄행은 진실하게 존재할 뿐만아니라 지금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52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한 이 보고는 『피비린 생체 장기 적출』이란 책으로 출판되었다.



연합국 집중 조명

2012년 9월, 연합국 인권리사회 제21차 회의에서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 한 죄행이 초점으로 되었다. 잇따라 미국국회, 캐나다국회, 유럽의회는 모두 상관내용의 청정회를 열었다. 2014년 연합국 인권리사회 제25기 대회에서 캐나다 정부대표는 처음 정식으로 “중공이 생체 장기 적출” 한 죄행을 공개 제출하였다.



유럽의회 긴급 의안

유럽의회는 2016년 6월 29일에 청정회를 소집하고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 등 량심범의 장기를 생체에서 적출하는 것을 즉시 제지하고자 호소했다.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아태사 사장 데이비드 · 킬고어와 독립조사 기자 에단 · 구트만이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아울러 중공이 량심범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최신 조사보고를 제기했다.



미국 343호 결의안

【명혜망】 2016년, 미국 국회 중의원 전체가 343호 결의안을 통과하고 중공이 즉시 생체 장기 적출 죄행을 멈추고 즉시 불법으로 수감한 모든 파룬궁 수련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직업인가

—“파룬궁”과 관련 된 직업 인원에게 쓴 글



파룬궁 박해에 참여할 때, 어떤 사람은 : “이것은 나의 직업이다” 혹은 “나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직업”의 특수성을 의식하고 있는가? 당신은 또 해외와 대륙 민간에서는 “이 공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특수성 1: 구두 지시, 그 어떤 문건도 남기지 않는다

거의 모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박해 명령, 불법 납치를 포함한 구류, 로교, 판결 등등은 모두 각급 “610 판공실”에서 직접 온 것이다. 그러나 “610 판공실”은 박해 정책, 명령을 아래에 전달할 때 항상 구두로 하며 문자를 남기지 않았다.

무엇때문인가? 1999년 6월 10일 장쩌민이 성립한 “610 판공실” 자체는 중앙문화혁명 령도소조와 류사한 헌법과 법률을 끊어한 철두철미한 불법조직이며 목적은 바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장쩌민의 지령—“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절단하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라”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구두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범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며 관건적인 시각에 책임을 “아래”에 떠밀고 구체적으로 박해에 참여하고 실시한 각급 공안 검찰 법원인원에게 떠밀려는 것이다.

특수성 2 : 파룬궁 박해에 그 어떤 법률을 근거가 없다

지금 갈수록 많은 대륙 변호사들은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중국 현재 법률의 그 어떤 조례에도 파룬궁을 ×교 라



력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 일찍, 상해 체육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본시 만명에 가까운 파룬따파를 애호하는 련공자들이 한곳에 모여 시범하면서 널리 보급하였다. 파룬따파 창시자 리훙즈 사부님은 1992년에 공개적으로 사회에 공을 전수하고 설법하였으며 광대한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6년간 공법은 련공할 때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의념의 인솔이 필요 없는 등 기타 기공과 다른 참신한 내용으로 사람의 이목을 새롭게 한 신국면을 개척했다. 목전에 이르기까지 홍콩, 오문, 대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모두 자발적인 군중 련공 조직이 있으며 아울러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세아 4 대주에 널리 전해졌고 전 세계에 약 1억명이 파룬따파를 배우고 있다. 이것은 본 방송국 기자의 보도이다.”

당신은 이것이 상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1998년 11월 24일에 방송한 한 토막 뉴스라고 상상할 수 있는가? 오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막 뉴스를 보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다.

박해전 관방 매체의 정면 보도

사실상 박해 전,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수련자는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으로 좋은 사람 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 인심에 대한 정화에도 거대한 작용을 일으켜 대륙에서 널리 환영 받았다. 매우 많은 대륙 매체는 모두 파룬궁에 대해 정면 보도를 하였었다. 예를 들면 《중국청년보》, 《북경일보》, 《중국경제시보》,





3, 미국 화부(华府) 인권 변호사 예닝(叶宁): 인류사회 매개 량지가 있는 성원은 모두 장쩌민을 고소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중에서 집단멸절죄, 혹형죄와 반인류죄 3 가지 국제 공죄를 범했고 이런 죄는 모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관할할 것이며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민중의 정의 의거



근 1~2년래 대륙 민간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성원하고, “장쩌민 고소”를 지지하는 외침 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하북(河北) 창주시 (沧州市) 파룬궁 수련생 샤홍(夏红) 녀사는 2016년 1월 21일 북경 통주구역의 국보대대에 납치되어 80여세의 부모가 집에서 눈물로 얼굴을 적시였다. 600명 고향 사람들은 서명과 손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샤홍녀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왼쪽 그림)

세계각지 파룬궁 수련생들은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본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동시에 민중들에게 장쩌민을 서명 고발하는 의거를 발기하였고, 매우 많은 파룬궁 진상을 똑똑히 알고 있는 세인들이 분분히 호응하였다.

2016년 8월까지: 하북성(河北省)에는 이미 27461명; 산동(山东) 제남시 (济南市)에는 12474명이 장쩌민 고소를 지지했고; 료녕성(辽宁省) 금주시(锦州市)에서만 7910명이 련명으로 원흉 장쩌민을 고발했다. ◇



산동성(山东省) 초원시(招远市)에서 15324명이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발했다. 윗 그림은 일부 서명표이다.

고 하지 않았다고 표하면서 파룬궁을 ×교라고 한 것은 장쩌민이 불란서 기자를 만났을 때 한 말에서 온 것이며 이것은 법률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표했다.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교를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 한다는 죄명을 들씌운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다. 변호사들이 법관에게 파룬궁 수련생은 어느 한 조의 법률 실시를 파괴하였는가는 질문에 모든 법관은 모두 말문이 막혔다.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 언론, 출판, 결사등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선교자는 무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진상 자료를 만들어 발급하는 것은 완전히 법률이 용허하는 범위내의 일이고 합법적이다.

특수성 3 : 중공은 공무원 자신이 책임지게 했다

중국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 “공무원이 뚜렷한 위법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했다면 마땅히 법에 의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3년 8월 12일 여러 큰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 실은 《중앙정법위원회: 공안 검찰 법원은 안전처리 질량에 대해 종신 책임져야 한다》는 문장에서: 공안 검찰 법원인원의 권력과 책임을 일치하게 하는 안전처리 책임제를 설립하고 법관, 검찰관, 경찰은 직책 범위내의 안전처리 질량에 종신 책임져야 한다; 억울한 사건과 허위 사건과 조작된 사건의 책임 추궁 기구를 설립한다;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얻은 증거, 증거를 위조 숨기고 비밀로 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고 말했다.

중공은 원래 “필요할 때는 쓰다가 다 쓰고나면 없애 버린다”는 수작에 능숙하다. 중공이 발동한 헤아릴 수 없는 정치운동은 모두 한무리 사람을 이용하여 다른 한무리 사람을 다스렸고 일단 당 스스로를 보호하려 할 때는 리용당한 사람은 곧 바로 희생양이 되여 버린다. 문화대혁명이 결속질 때 전국 군대관리 간부중 17명, 경찰 793명 도합 810명을 운남으로 싣고 가서 비밀



파룬궁 수련생에게 무죄변호를 한 일부 변호사, 외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배열: 고즈성, 리쭈빈, 모사오핑, 귀궈딩, 장톈융, 리승빙, 탕지텐, 셰옌이, 리허핑

리에 총살하고는 가족을 속이기 위해 “공무로 순직” 했다는 통지서 한장을 주고서 내막을 숨기고 사람을 죽여 입을 막았다. 장쩌민은 자신이 해외 파룬궁 수련생에 기소당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2004년 해외 파룬궁 불법학회에 : 파룬궁 수련생이 얼마 죽었으면 얼마 되는 경찰을 총살하여 목숨으로 보상하겠다는 조건을 제기였는데 파룬궁 수련생에게 거절당했다. ◇

참고자료

199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공안 검찰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행위에 대한 성질, 죄행, 형벌의 정도를 정한 이른바 근거는: 《공안부 통고》, 《민정부 통고》, 《사법해석》 및 《사법해석》(2)이다. 이 두개 《통고》와 두개 《사법해석》은 모두 인민 대표 대회 립법 기구의 확인을 통과하지 않았기에 모두 행정문건이며 법률이 아니다.

1999년 10월 30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당시 정치 형세에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총망라 《사교 조직을 단속하고 사교 활동을 방비, 징벌할 데 관한 결정》을 보충하였다. 이 《결정》은 중국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다”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파룬궁” 세 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 4월 9일 중공중앙, 국무원과 공안부에서 협력으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통지)》 공통자 (2000) 39호 문건에서: 지금까지 인정하고 명확히 되어 있는 사교조직은 도합 14 가지이다. 그중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 7 가지이고, 공안부에서 인정하고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 7 가지라고 했다. 이 14 가지 “사교” 명단에는 모두 파룬궁이 없다. [구글(谷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안부에서 인정한 사교조직”을 입력하고 수색하면 이 명단을 찾을 수 있다]

공안부에서 사교조직을 인정했을 때는 이미 2000년이며 《형법》과 일련의 사교조직 처리문건 정신에 근거하고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사법 해석의 정의를 참고한 다음 이 통지를 하달했다고 명확히 서술했다. 하지만 이 통지에는 파룬궁을 X교 조직으로 그 속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파룬궁 수련과 파룬궁을 선전하는 것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전세계에서 장쩌민을 고소

장쩌민을 고소하고 정의를 호소하다

2015년 5월 이래 중국 대륙 파룬궁 수련생들은 장쩌민 고소 고조를 일으키였다. 목전 이미 20여만명 파룬궁 수련자 및 그들 가족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형사 고소장을 중국 최고 검찰원에 우편으로 보내여 최고 검찰원에서 최고법원에 장쩌민에 대해 고소하고(간접하여 “장쩌민 고소”) 그를 법에 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장쩌민이 발동하고 유지한 이번 집단멸절성 박해는 이미 17년을 지속해왔으며 억에 달이는 파룬궁 수련생과 그들의 가족에 막대한 고난을 가져다주었다. 동시 이번 무고한 사람에 대한 박해는 중국의 법제도 더욱 더 암흑으로 나가게 했고, 중공의 관리를 더욱 더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만들었고, 중국 사회의 도덕도 더욱 더 타락시켰다. 모든 중국 사람은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다.

해외 목소리

1, 아세아 7개 나라 180만 민중이 장쩌민의 죄행을 련서 고발

파룬궁 수련생의 장쩌민을 고소하는 의거는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얻었다. 중국 대륙의 민중들 뿐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민중, 국회 의원을 포함한 정요, 유명인사도 나서서 성원했다. 2016년 10월까지 아세아에서만 7개 나라에서 장쩌민 죄행을 련서 서명하고 “장쩌민 고소”를 성원한 인수는 이미 180만을 초과하였다.

2, 미국 뉴저지주(新澤西州) 국회중의원 크리스토프·스미스는 말했다: 어떠한 정권이 정좌(静坐)하는 것으로써 진리와 건강을 찾는 파룬궁 수련생을 이렇게도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는가?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는 지난 20년간 제일 수치스러운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런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은 반드시 법률의 징벌을 받아야 하며 그들은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